

‘소프트파워 인문학’의 정착을 위한 제언*

魏幸復** · 朴鍾普***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한류’와 ‘인문적 소프트파워’
3. 초연결 시대와 ‘인문적 소프트파워’
4. 한국의 소프트파워 현황과 과제
5. ‘소프트파워 인문학’의 관심 영역과 전망
6. ‘소프트파워 인문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들어가는 말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군사력·경제력 등의 물리적인 힘을 지칭하는 ‘하드파워(Hard Power)’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조지프 나이(Joseph S. Nye)는 소프트파워를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으로 설명했다. 1980년대 이후부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

*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NRF-2016S1A6A7932134)

본 논문은 <한국의 소프트파워, 이대로 괜찮은가? - 인문적 소프트파워와 국가 브랜드>라는 주제로 2019년 8월 27일에 개최된 국회토론회에서의 발표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漢陽大學校 中國學科 教授

*** 漢陽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教授

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나이는 미국이 막강한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냉전이 종식된 후의 여건 속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프트파워’라는 용어가 창안된 것이다. 그러나 시각을 바꿔 바라보면 ‘소프트파워’는, 억압이나 회유 등의 방법을 쓰지 않고, 보편적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며, ‘感化’라는 경로를 통해 자발적 동의와 협조와 지지를 얻고자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통신과 미디어가 고도로 발달한 ‘지구화’와 ‘초연결(hyper-connectedness)’의 여건으로 인해 저비용과 높은 속도로 다양한 정보들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드파워가 약한 국가들도 소프트파워의 신장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으며, 소프트파워 제고는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해외 시장에서의 의존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소프트파워 신장이 한국에게는 더욱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¹⁾ 이는 ‘공공외교’²⁾에 대한 정부 차원의 높은 관심에서도 확인된다.³⁾

한국의 경우에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韓流’가 소프트파워의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중문화상품은 국가인지도와의 관계가 그리 높지 않으며, 한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문자산을 체계적

1) 2017년에 들어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6년 만에 다시 상승했는데, (「한국경제 대외 의존도 6년 만에 상승..외풍엔 유의해야」, 『연합뉴스』, 2018.05.02 참조), 내수 시장이 크지 않다는 특성상 대외의존도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외부 변수에 흔들릴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이니, 소프트파워 신장과 국가브랜드 제고가 한국에게는 항시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항구적인 숙제일 수밖에 없다.

2)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이다.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3) 대한민국 외교부는 산하에 ‘공공문화외교국’을 두고 있으며, ‘공공문화외교국’은 ‘공공외교총괄과’ ‘유네스코과’ ‘문화교류협력과’ ‘정책공공외교과’ ‘지역공공외교과’로 구성 되어 있다.

으로 발신할 통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중문화계의 개별적 스타들의 스캔들이나 판매자들의 과도한 이윤 추구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훼손되는 역작용을 일으킬 위험도 상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韓流 속에 ‘인문적 소프트파워’ 자산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만 보다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소프트파워의 伸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韓流의 수준과 생명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인문학계가 ‘소프트파워 인문학’의 개념을 토론하고 관련 연구를 진작한다면, 인문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성찰적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도 주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인문적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작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초보적 의견을 학계에 제출해본다.

2. ‘한류’와 ‘인문적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는 다양한 요소와 경로를 통해 구축되는 총체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드라마, 영화, K-pop 등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韓流’가 소프트파워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2018년도 한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0% 이상의 참여자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한국의 이미지 향상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현대문화’가 꼽았는데, 여기에서의 ‘현대문화’는 ‘한류’ 혹은 ‘문화상품’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⁴⁾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의 문화상품은 소프트파워의 擔持體이자 확산경로이다. 대중의 마음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는 대중문화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과 플랫폼 기반의 다매체 시대에는 문화상품이 소프트

4) 본 조사는 ‘현대문화’ ‘문화유산’ ‘정치외교’ ‘경제’ ‘안보’ ‘사회’ ‘스포츠’의 7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했다.

파워 신장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은 당연히 소프트파워 형성의 일익을 담당한다.

과연 헐리우드는 하버드보다 더 중요한 구실을 하는가? 그 답변은, 하버드만큼 순수하지는 못해도 헐리우드가 사람들 속으로 훨씬 폭넓게 파고 든다는 것이다.⁵⁾

베를린 장벽은 1989년에 허물어졌지만 이보다 훨씬 전에 TV와 영화로 이미 그 장벽은 뚫려 있었다.⁶⁾

1988년에는 레논 평화클럽이란 조직이 결성되어 이 클럽의 회원들이 소련군의 (체코) 철수를 요구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레논이 레닌을 누른 셈이다.⁷⁾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 문화상품은 대중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면서 그 자체의 유통으로써 직접적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제고와 국가브랜드 상승을 통해 자국 상품의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타겟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 당해 문화상품 생산국에게 거대한 간접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생산유발액은 약 1조 6,3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7,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요 소비재수출액에 대한 생산유발액은 2조 5,1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총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약 4조 1,400억 원의 생산유발과 1조 4,2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인 것으로 계산된다.⁸⁾

영국의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이나 일본의 ‘쿨재팬(cool Japan)’ 등

5) 조지프 S 나이 지음, 홍수원 옮김, 『소프트파워』, 96쪽

6) 같은 책 99쪽

7) 같은 책 101쪽

8) 현대경제연구원, 「방탄소년단(BTS)의 경제적 효과」, 2018.12.17., ii쪽 참조

은 모두 국가이미지 개선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국가단위의 추진 프로그램들이고,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가 닦혔을 때 중국은 문화산업 발전을 통한 국면 돌파를 도모하기도 했었다.⁹⁾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은 소프트파워 위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파워 인문학’ 역시 문화산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한국의 문화상품에 가치와 영혼과 국적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역과 문화권의 특성까지를 파악함으로써, 문화상품 수출과 소프트파워 발신을 활성화할 전략 수립까지를 관심 영역 속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중문화와 문화상품은 그 속성상 간과해서는 안 될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 중심의 소프트파워 성장 정책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문화상품, 특히 K-pop과 국가인지도 제고와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연구보고도 적지 않으며,¹⁰⁾ 대중문화상품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와 인문가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진지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로이다. 또한 대중문화계 개별 스타들의 스캔들이나 상품 생산자나 판매자의 과도한 이윤추구로 인해,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역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상존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중문화 스타나 상품일수록 더 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문화는 한국의 약점이 아니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2019년에 스캔들에 빠져서 큰 곤경을 겪었다. 이는 한국의 문화 하위 지수 하락으로 반영되었다. 버닝썬 스캔들에는 한국의 음악 산업에서 눈에 띄는 수많은 유명 K-pop 스타들이 연루되었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9) 「文化産業振興規劃」(2009年 09月 22日 國務院常務會議 通過) 참조

10) K-POP은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해외 소비자들은 K-POP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호기심에 K-POP을 접하는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낙건 등, 「K-POP과 K-POP 스타가 국가이미지와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 회논문지』 제6권 제4호, 2012, 12쪽)

한국은 한국문화의 더 넓은 범위와 다양성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문화적 자산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는 ‘한류우드(Hallyuwood)’ 영화 산업과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을 통해 현대 문화와 전통문화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¹¹⁾

한국은 “韓流”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대중문화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호감을 얻고 있으며, 한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성장에 높이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원대한 전망 위에서, 호흡이 길고 차원이 높은 국가이미지 개선을 한국이 도모하려면 고유의 인문자원을 소프트파워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문화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프랑스인들이 처음에는 한국 문학, 영화에 열광했고, 케이팝은 그 다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한류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 케이팝에 열광하는 한류 팬은 많다. 하지만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니 그곳에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었다. 한류가 계속되려면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케이팝뿐 아니라 영화, 문학, 미술 등 여러 예술을 풍부하게 가꿔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류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¹²⁾

위 인용문은 기자와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Guy Sorman)의 대담을 정리한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기자의 질문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11) While Culture is by no means a weakness for South Korea, the entertainment industry suffered greatly in 2019 as it was mired with scandal. This is reflected by South Korea's drop in the Culture sub-index. The Burning Sun scandal involved numerous high-profile K-pop stars which took the shine off of Korea's music industry a very high-profile way. To bounce back, South Korea should invest more in others cultural assets that showcase more of the range and diversity of Korea's cultural offering to the world. This could be done through greater leveraging of the budding Hallyuwood film industry and Kore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balancing contemporary and historical culture. (<https://softpower30.com/country/south-korea/>)

12) “한국정치는 복수에 함몰돼 내전... 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려”, 『동아일보』 2020.01.04.)

나아가 전 세계에서 한류가 확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까”였다. 다양한 형식의 예술을 고루 국제사회에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소르망의 대답이었는데, 기자가 “케이팝”에 관해 질문했기 때문에 ‘영화, 문학, 미술’ 등을 예로 들었을 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외국인이 적다는 것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국제사회에 두루 알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프랑스의 서점에 한국에 관한 책이 전혀 못혀 있지 않은 현실을 한탄한 학자도 있었다.¹³⁾

소프트파워의 형성은 이성적·감성적 능력을 포괄하는 ‘문화적 힘’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기술발전으로 인한 여가의 대폭적 확대가 예상되는 향후의 삶에서는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조지프 나이는 소프트파워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그 나라의 문화’를 들었는데, ‘소프트파워 인문학’이 주목하는 문화는 “인간의 사고와 표현의 정수로서 지식과 실천을 통해 완성을 추구하려는 열망을 담고 있는 개념”¹⁴⁾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문학과 예술, 사상과 종교, 풍속과 생활문화 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등등의 근간을 형성하는 가치와 이념을 포괄하며, 특정 집단에 의해 공유되는 생활양식과 상징체계를 가리키는 광의(廣義)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화이다. 즉 예술작품 혹은 대중문화 중심의 개념이 아닌 것이다.

지금 각광 받고 있는 한국의 문화상품들과 더불어, 한국사회가 지닌 ‘인문적 소프트파워’ 자원들이 함께 보급되고 확산되어야만 보다 장기적이면서도

13) 프랑스의 어느 광장에서, 대학에서 한류의 대폭발을 실감했다는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가 (2020년 1월) 23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경고가 눈에 들어온 것도 같은 이치다. …… "그런데 (프랑스) 서점에서 본 한국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시아 코너에 한국을 소개하는 책 한 권 없습니다. 중국은 시장이 크니까 그렇다 치고, 역사가 오랜 일본 관련 연구서적이나 대중서적은 엄청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한국학과 학생들도 학년이 거듭되면 급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을 이어줄 수 있는 역사, 문화, 사회과학 강좌도 책도, 그것을 강의할 강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장관님, '그런' 한류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2020.01.23)

14)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culture, 文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정적인 소프트파워의 伸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한류’의 생명력과 국가 이미지 형성에의 기여도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이고 이지적인 요소들의 세례와 정서적 감동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소프트파워는 그 생명력이 길고, 구체적 행동이나 변화까지도 야기할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초연결 시대와 ‘인문적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는 군사력·경제력 등의 물리적 힘을 지칭하는 ‘하드파워(Hard Power)’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지미 카터 정부에서 국방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는 “한 나라의 소프트파워는 주로 세 가지 형태의 자원에 좌우된다. 즉 (호감을 사고 있는 지역에서의) 그 나라의 문화와, (국내외에서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그 나라의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정당하고 도덕적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 나라의 대외정책이 그것이다.”¹⁵⁾라고 설명함으로써, ‘문화’와 더불어 자유, 민주, 평등과 같은 정치적 인문적 가치들이 소프트파워의 핵심적 요소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선 이후부터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는 1990년에 그의 저서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에서 소프트파워 개념을 제시했고, 9·11 테러가 발생하자 그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는데, 2004년에 출간된 나이의 저서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otics』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판되어 널리 읽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이 정당할 때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강화되는 것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엄청난 소프트파워를 지니고 있었다. ……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이상적 목표를 호모하게

15) 조지프 S 나이 지음, 홍수원 옮김, 『소프트파워』, 세종연구원, 2004, 39쪽

만들고 나아가 자국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게끔 만들 수 있다면, 이들 나라를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굳이 위협하거나 회유책을 쓸 필요가 없다. 매력은 언제나 강제보다 효과적인데, 가령 민주주의와 인권, 개인적인 기회의 보장과 같은 여러 가지 가치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힘이 강하다.¹⁶⁾

나이가 제창한 ‘소프트파워’는 냉전이 끝난 시기의 정보화·지구화 환경의 기반 위에 정립된 개념으로서, ‘강제나 위협 혹은 회유’가 아닌, 매력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앞세운 ‘설득과 동의’를 통해 ‘자발적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미국의 지배력을 존속시키려는 시도였다.¹⁷⁾ 그렇기 때문에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이론으로 해석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나이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조합 공식으로서 스마트 파워를 강조하면서도 하드 파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소프트 파워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¹⁸⁾

그러나 나이가 ‘소프트파워’라는 용어를 제시하기 이전에도, 武力이 아닌 ‘軟性의 힘’ 혹은 ‘人格이나 德性에 의한 感化’를 통해서 지지나 추종을 획득하고, 통치력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으며, 동아시아의 지식사회에서도 일찌감치 2,500년 전부터 이러한 주장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소프트파워’가 나이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개념이나 방법은 아닌 것이며, 인류가 늘 주목하면서 토론해 온 대상인 것이다.

君子の 德은 바람이고, 小人의 德은 풀이다. 풀 위에 부는 바람은 반드시 풀을 눕힌다.¹⁹⁾

16) 같은 책 8-9쪽

17) “군사력 유지의 중요성을 부정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 파워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며, …… 소프트파워는 파워의 한 형태일 뿐이다.” 같은 책 8쪽

18) 김상배 엮음,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한울, 2009, 28쪽

19)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 必偃.”(『論語·顏淵』)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안정되겠습니까?”라는 물음에, 나는 “통일되면 안정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누가 통일시킬 수 있을까요?”라는 물음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통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누가 그를 추종할까요?”라는 물음에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²⁰⁾

道로써 君主를 보좌하는 신하는 무력으로 세상을 강제하지 않는다.²¹⁾

카(E. H. Carr)는 ‘의견을 장악하는 힘’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하며, 군사력 및 경제력과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²²⁾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의’나 ‘공감’ 혹은 ‘존경’과 같은 인지적·정서적 과정을 통해서 자발적 ‘지지’나 ‘복종’을 획득하는 ‘소프트파워적’ 통치술은 이상적인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정치적·사회적 체제가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원리로,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리로써 기능할 수 있는 개념이 ‘소프트파워’이다. 그것이 무형적인 문화나 가치관이든 혹은 유형적인 정치체제나 정책이든 막론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擔持하고 있어야만 ‘소프트파워’ 자원으로서의 쓸모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파워’는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개념이다.

‘초연결’ 환경은 ‘소프트파워’ 개념 대두의 핵심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형성과 확산의 주요 경로이기도 하며, 모든 국가들이 ‘소프

20) “天下惡乎定?” 吾對曰, “定於一.” “孰能一之?” 對曰, “不嗜殺人者能一之.” “孰能與之?” 對曰, “天下莫不與也.” (「孟子·梁惠王 上」)

21) 以道佐人主者, 不以兵強天下. (「老子·30」)

22) 김세미, 「외교대상(target)과 실행체계를 중심으로 본 문화외교의 쟁점과 추이 - 영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제9권 1집(통권 제16호, 2018, 111쪽에서 재인용)

트파워' 개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촉매제의 역할까지를 겸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기기와 기기 간 네트워크가 촘촘히 형성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정보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유통이 한결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감소되었기 때문에, 하드파워가 약한 국가들도 소프트파워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하드파워와는 달리 소프트파워는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며, 각국은 저마다의 방법으로서 소프트파워 신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프트파워'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소프트파워'나 국가브랜드'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관들이 많아 졌고, 국제사회 역시 그들이 발표하는 결과를 홀시하지 않는다.²³⁾ 그러나 이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파워 측정기준이나 방법이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소프트파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Portland Communications Ltd)'이 사용하고 있는 측정지표 역시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하며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서구 선진국들에 유리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소프트파워 형성의 경로와 확산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나라마다 서로 다른 소프트파워 원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 나라가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한 정책을 세울 때는 자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항목이나 영역 혹은 확산 경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자국에 적합한 소프트

23) '국가브랜드'는 국가경쟁력 형성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 소프트파워와 마찬가지로 국가인지도나 호감도 등 유·무형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소프트파워와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한국의 소프트파워/국가브랜드는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의 「Nation Brands 2018」에 의하면 10위, 캐나다 모노클(Monocle)의 「2018/19 소프트 파워 조사(Soft Power Survey 2018/19)」에 의하면 15위, US News가 발표한 「최고의 나라 순위(Overall Best Countries Ranking, 2019)」에 의하면 22위였다.

파워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드파워가 매우 강한 국가는 아니지만, 통신기술과 정보망 구축에 있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더욱이나 자국 실정에 맞는 소프트파워 강화책을 수립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근현대사’에 바탕을 둔 ‘인문적 소프트파워(humanistic soft power)’ 창출과 확산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경험을 소프트파워 자산으로 활용하는 연구 및 성과 활용에 특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발상이 ‘소프트파워 인문학’에 관한 토론의 출발점이다.

4. 한국의 소프트파워 현황과 과제

광범한 지역에 걸쳐 한류(韓流)가 형성되고 K-pop이 거대한 선호층을 확보하면서,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이미지 개선이 빠르게 달성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인식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나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 기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소프트파워 순위는 지속적으로 20위권 안팎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²⁴⁾

〈 2018년의 소프트파워 평가 결과〉

종합 평균 순위	국가	DIGITAL	ENTERP RISE	EDUCAT ION	CULTUR E	ENGAGE MENT	GOVERN MENT	POLLIN G
1	영국	3위	7위	3위	2위	2위	11위	6위
2	프랑스	2위	18위	5위	3위	1위	15위	5위
3	독일	4위	6위	2위	4위	3위	8위	9위

24) <https://softpower30.com/> 참조

4	미국	1위	5위	1위	1위	4위	16위	15위
5	일본	8위	9위	10위	14위	5위	17위	3위
20	대한민국	5위	8위	15위	11위	14위	20위	26위
21	싱가포르	7위	1위	23위	28위	30위	23위	22위
27	중국	30위	22위	13위	9위	9위	30위	28위
28	러시아	13위	27위	18위	21위	13위	29위	30위

2018년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디지털’과 ‘기업’ 항목에서의 순위는 높은 반면, ‘정부’와 ‘국제투표’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는데, ‘국제투표’ 항목에서 특히 낮게 평가된 점은 한국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 알리기’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려준다.²⁵⁾

이 점은 2019년에도 다르지 않았다. 2019년의 포틀랜드 평가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해서 19위를 기록하였는데, 포틀랜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Soft Power 30 지수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낮은 순위는 국제투표 점수이다. 이것은 한국이 보유한 소프트파워 자산과 외부 세계가 갖고 있는 인식 사이의 격차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더 폭넓은 공공외교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글로벌 대중들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한국은 강력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대중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외부 세계에 대한 기여도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또한 글로벌혁신 허브로서의 입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

25) 포틀랜드커뮤니케이션 역시 ‘한국이 문화와 기술 등의 소프트파워 자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전된 남북관계는 대한민국에게 좋은 징조이지만, 남북관계의 취약함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문화 및 기술과 같은 소프트파워 자산을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에 노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청중을 위한 보다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https://softpower30.com/country/south-korea/>

모두가 삼성, LG, 현대와 같은 브랜드를 한국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²⁶⁾

한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프트파워 자산을 국외로 알리지 못했으며, 우수한 디지털 자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용문 마지막 문구 “모두가 삼성, LG, 현대와 같은 브랜드를 한국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는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얼마나 빈약한 수준에 있는지를 절감하게 하는 발언이다. 삼성과 LG와 현대의 제품을 좋아하고 그 기업을 좋아하지만, 한국이 그런 우수한 기업을 가진 나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이라면 몰라도, 그런 기업이 한국 같은 나라의 기업일 리가 없다”는 것이 국제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식이라면, 드라마, 영화, K-pop, 게임 등의 문화상품들은 ‘한국 알리기’ ‘국가이미지 개선’ ‘국가브랜드 강화’ 등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위 인용문이 2019년의 측정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소프트파워의 현재 수준인 것이다.

2018년도에 한국은 1인당 GNP가 3만 달러에 도달해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고, 영국의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가 경제력·기술력·문화력·외교력·군사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지정학적 역량’ 순위에서는 11위를 차지했다.²⁷⁾ 그리고 IMF 통계 기준으로 2018년도 한국의 GDP 순위는 12였는

26) Across all categories of the Soft Power 30 index, South Korea’s lowest ranking comes in its combined polling score. We can interpret this as a gap between the soft power assets it holds and perceptions the outside world has of South Korea. As result, Korea should double down on an extensive public diplomacy campaign to better engage global audiences and tell its story. By leveraging on its strong digital assets, South Korea can make itself more accessible to international audiences and better articulate its contribution to the outside world as a reliable partner. It should also leverage its position as a hub global innovation. Not everyone recognises brands such as Samsung, LG, and Hyundai as Korean. (<https://softpower30.com/country/south-korea/>)

27) 「한국의 국력은 세계 11위:영국의 외교 싱크탱크, '지정학적 역량 국가별 순위 2019'

데, 포틀랜드의 소프트파워 평가에서는 20위의 성적을 받았다. 포틀랜드 기준의 평가결과가 한국의 소프트파워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소프트파워 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태에 있음을 파악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앞서 말했듯이, 각국은 스스로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함에 있어 자국에게 유리한 영역과 항목에 집중해야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한국에게 있어서는 ‘인문적 소프트파워’ 영역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한국이 인류 보편의 가치와 부합하는 역사적·문화적 유산과 경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문적 소프트파워’ 신장을 국가브랜드 제고의 중요한 경로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에 낀 강중국이지만 다양한 상징적 파워를 갖고 있다. 강점을 갖는 주요 이미지는 “짧은 시기에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강중국”, “제3세계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민주국가”, “서구와 전통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창조 국가”, “교육열과 수준이 높은 나라” 등이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아직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점차 그 파워를 높여가는 중이다. 호감을 갖는 주요 문화는 “소위 한류를 형성하는 드라마 및 영화”, “김치, 불고기, 인삼 등 한국 음식”, “태권도 등 한국 스포츠”, “IT 강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IT 문화”, “기타 한글, 온돌” 등 다양하다.²⁸⁾

새뮤얼 헌팅턴은 전통적으로 축적해 온 문화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고도성장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는데,²⁹⁾ 이는 한국이 전통문화 분야에 있어

발표], 『월간조선』, 2019년 1월 15일 입력

28) 서이중, 「미래 전장환경에서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역할 및 기능」, 80쪽

29) 나는 가나와 한국의 1960년대 초반 경제자료들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60년대 당시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아주 비슷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다. …… 30년 뒤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산업 강국으로 발전했다. …… 가나의 1인당 GNP는 한국의 15분의 1 수준이다. …… ‘문화’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인들은 검약, 투자, 근면, 교육, 조직, 기강, 극기정신 등을 하나의 가치로 생각한다.

서도 세계를 향해 발신할 소프트파워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조지프 나이 역시 한국과 태국이 경제 분야와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으로 다른 국가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고 평가했는데,³⁰⁾ 이는 한국의 근현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촛불시민이 2017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4월에 다시 유엔 인권상 후보(제10회)에 추천되었는데, 시상이 결정되는 과정에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연구·시민단체들도 추천에 참여했다고 보도되었다.³¹⁾ 한국의 촛불혁명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소프트파워 자원이 된 것인데, 한국인이 최근 5,60년 동안 기록해 온 항쟁과 희생의 역사는 인류사회에 자유와 민주와 평등의 메시지를 전할 소중한 인문자산이다.

동아시아 권역의 긴장관계 속에서도 자유·민주·평화·자주 등등 보편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치렀으며, 신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은 세계로 내보낼 ‘인문적 소프트파워’ 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의 경험을 소프트파워 자원으로 전파시킴으로써 보편가치의 실현에 노력하는 국가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 한국전쟁, 남북분단, 국내의 정치적 폭압과 노동탄압 등등 숭한 질곡을 겪으면서도 끝내 국가와 민족과 문화를 지켜내고 풍요로운 민주사회를 일궈낸 한국의 경험과 지혜를 소프트파워 자원으로 승화시키고, 한국인이 축적해 온 수난과 극복의 과정을 인류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하고 세계인들과 공유한다면, 인류사회의 진화에 기여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의 소프트파워 또한 신장될 것이다.

소프트파워가 매력으로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지지와 흠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보편적 인문가치’를 앞세워야 한다는 점이 늘 상기되어야 한다.

(새뮤얼 헌팅턴·로렌스 해리슨 공편, 이종민 옮김,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2001, 8-9쪽)

30) 조지프 S 나이 지음, 홍수원 옮김, 『소프트파워』, 162쪽

31) 「1700만 촛불시민, 유엔 인권상 후보로 추천됐다」, 『세계일보』, 2018년 4월 11일자.

편협한 가치와 지역에 한정된 문화는 소프트파워를 생성하기 어렵고,³²⁾
오만하거나 국익추구에 바탕을 두는 방식은 오히려 소프트파워를 약화
시킨다.³³⁾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정치적 가치관” 등이 소프트파워 형성의
주요 요소이고, 이것들이 ‘인문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초국가적(transnational) 형태의 가치와 문화를 탐색하는 인문학적 논의 및 연
구의 ‘場’을 확대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소프트파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프트파워
강화와 국가브랜드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프트파워 인문학’의 관심 영역과 전망

지역과 문화권을 초월해 대량의 정보가 상시적으로 유통되는 '초연결'의 지
구화 환경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시적이고 무제한으로 온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공유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의 발신이 소프트파워 제고의 핵심적 요

32) 조지프 S 나이 지음, 홍수원 옮김, 『소프트파워』 39쪽

33) 중국은 호금도(胡錦濤) 정부 때부터 소프트파워 개념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産業振興規劃)」을 수립해 정부 주도의 문화산업 발전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습근평(習近平) 정부는 ‘중화부흥(中華復興)’ ‘문화굴기
(文化崛起)’ 등의 정부정책과 연결시키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
했음. 그러나 ‘문화굴기’ 혹은 ‘문화강국(文化強國)’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칠고 조
급한 방법과 과정이 ‘샤프 파워(sharp power)’와 ‘차이나 불링(China Bullying)’에 관
한 부정적 논의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
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임. (위행복, 「중국의 문화산업정책 분석」, 『한중언어문화연
구』 제51집, 2019. 2, 231쪽)

인이 된다. 그리고 ‘소프트파워’가 자신의 ‘實在’로서 상대를 매료시켜 발생하는 힘이므로, 소프트파워를 높이려면 자국 사회가 먼저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소프트파워 인문학’은 ‘對外 發信’과 ‘對內 擴散’의 두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이 대외적 발신을 전제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자국 내에서 먼저 인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즉,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가치를 국내에서 먼저 실현해야만 ‘발신’할 소프트파워가 생성되는 것이니, 현 시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고, 한국사회에서 먼저 질 높은 삶을 구현함으로써만 인문적 소프트파워 강화가 달성된다는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인문적 소프트파워 자원을 증대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가 먼저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민주와 평등의 실현, 갈등해소와 사회통합, 공동체 의식 강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 공평과 정의의 관철 등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건설하고 품위 있는 세계시민 육성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초연결’ 시대의 글로벌 환경에 처해 인류 보편의 가치로 세계와 소통하고, 인류사회가 공감할 ‘인문 가치’를 담은 소프트파워 자원을 발신하고 소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구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이지만, 분단 상황과 압축적 고도성장의 과정이 야기한 폐해를 많이 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이 먼저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선결요건이라는 점에 유의함으로써 한국의 現在를 주시하고 未來를 전망해야 하며, 한국 사회에서 먼저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사회 내에서의 인간존중 실현이 인문적 소프트파워 제고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압축적 고도성장과

신자유주의 환경이 야기한 문제들의 해소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자살문제와 관련된 국제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한결같은 한국의 순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3년 연속 OECD 1위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80만 명 중 78%는 중·저소득국가 국민이다. 반면 1인당 GDP 3만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은 자살률에서만은 앙골라·시에라리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경제력과 삶에 대한 의지의 불균형은 한국사회를 떠받친 고성장의 어두운 뒷면을 드러낸다.³⁴⁾

‘사회적 관계 손상’이 자살의 제1원인이라는 분석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가 심각하게 붕괴되었음을 알려주는데, 다른 통계를 보아도 우리 국민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층과 노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중장년층에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숫자가 가장 많다는 통계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하게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노인빈곤률·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흙수저’나 ‘N포 세대’ 등의 자조적 표현들이 알려주는 바,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젊은이들이 심각한 좌절을 겪는 나라이고, 사상적 탄력성이 부족해 ‘안보 개념’으로 진보와 보수가 갈리는 나라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³⁵⁾ 존엄한 삶을 사는 사회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 내에서의 인문가치 실현이 인문적 소프트파워 제고의 출발점이다. ‘소프트파워 인문학’은 인류사회의 요청에 부합하는 인문적 소프트파워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한국인의 존엄한 삶을 담보하고 문화적 자긍심과 자존심을 양양하며, 인문소양과 시민의식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³⁶⁾

34) 「OECD 자살률 13년째 1위… 불행한 한국사회」, 『시사위크』 2017.10.02.

35) No one is left behind.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설명.

36) 위행복, 「4차산업혁명 시대 人文學의 展望 - ‘材’와 ‘不材’의 사이」 (『한중언어문화연구』 제47집, 2018) 141-145쪽 참조.

우리 국민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선결과제로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꼽고 있는데, 한국의 소프트파워 인문학은 전쟁과 분단의 경험 그리고 남북갈등 해소의 과정으로부터 인류의 평화 증진에 기여할 가치를 발굴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기여할 인문학적 성찰과 연구를 통해 민족의 순조로운 화해와 소통 증진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1순위 관심 항목으로 응답되었으며,³⁷⁾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 역시 남북문제 해소를 한국 소프트파워 강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2018년 동계 올림픽의 상징적인 개회식에서 북한과 남한은 한반도기를 들고 행진하며 긴장감을 완화하고 비핵화를 위한 길을 닦았다. 역사적인 “트럼프-김 정상회담(Trump-Kim summit)”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중대한 악수가 이어졌으며, 더 최근에는 남북 간의 아시안 게임 단일팀이 합의되면서, 전례 없는 남북 관계의 긍정적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남한의 정치적 리더십과 문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 낼 능력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으며, 국제적 관심사에 관한 남한의 접근법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었음을 여론 조사에서 볼 수 있었다.³⁸⁾

남북 분단‘의 상황은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경쟁력을 낮추는 제1요소이다. 소프트파워 인문학은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실천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이념적 기반을 강화하고 남북의 문화동질성 회복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파워 인문학’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문자산의 우수성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자동화 그리고 초고속통신의 시대를 맞아 인간의 존

37) 「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2019.1, 19쪽 참조

38) <https://softpower30.com/country/south-korea/>

업과 자유와 평등을 수호할 수 있는 가치의 수립과 실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급격한 기술발전의 성과가 삶의 질을 높이는 토대가 되도록 하는 이념과 제도의 창출이 시급한 시대에 처해, 인문적 소프트파워 연구는 인류의 현재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창안한 클라우스 슈밥은 기술발전이 초래할 불평등의 심화와 소외의 확대를 미래 사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창출할 혜택이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장악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의학 발달의 혜택이 부유한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조차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지도 모른다. 로봇과 알고리즘이 점차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고, 투자는(더 정확하게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사업을 할 때) 자본 집약성이 완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은 전문적 기술이라는 제한된 범위로 더욱 편중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과 시장은 소수의 ‘스타’들에게 지나치게 큰 보상을 주게 될 것이다.³⁹⁾

사회적 불평등을 뛰어 넘는 불평등의 가능성도 묵과할 수 없다. 존재론적 불평등은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수용하는 사람과 저항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적 승자와 패자로 갈라놓게 될 것이다. 승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정 분야(유전공학과 같은)로 가능해진 인간의 근본적 개선에서 오는 이점을 누리게 될 수도 있지만, 패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종류의 계층 간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⁴⁰⁾

두어 해 전에 우리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개인들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자본과 기술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자본이나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계층이나

39)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지음, 송경진 옮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148- 149쪽

40) 上同 157쪽

집단에 의해 대다수 사람들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는 위험 또한 상존한다. 고도의 안면인식 프로그램 등 빅브라더(big brother)의 출현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이미 등장했는데, 이것들이 악용되면 대중은 자유와 존엄을 잃게 된다.

정부가 기술의 결합을 활용해 정부와 기업의 활동에 투명성을 요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개인 그룹을 진압하거나 탄압하려 할 수도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정부가 시민사회 그룹의 독립성과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마련하면서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건강하고 열린사회에 어긋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⁴¹⁾

전 세계 최상의 부자 2,153명의 재산이 전 세계 인구의 약 60%인 46억 명이 소유한 재산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⁴²⁾, 옥스팜은 부의 편중 원인으로 과세 실패를 지적하면서, 전 세계 1% 부자들에게 향후 10년 동안 0.5%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경우 1억 개가 넘는 새로운 사회복지 일자리를 창출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 중 소득 수준 상위 10% 계층이 벌어들이는 돈이 하위 10% 계층의 19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³⁾

新自由主義체제 하에서 ‘公共’과 ‘公益’에 관한 논의들이 위축되고 있고, “세계화”의 여건 하에서 인공지능, 자동화, 정보통신기술 등이 인류사회 전체에 걸친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바, 지식산업사회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며,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

41) 「2016년 세계 위험 보고서」, 上同 155쪽

42) 「전 세계 커지는 부의 불평등... 공정한 과세 필요」, 『연합뉴스 TV』, 01-27)

4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신고분(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상위 10%의 연간 종합소득 평균은 2억2600만원으로 하위 10% 116만원의 194배였다.(「서울상위 10%, 年2.2억 벌 때 하위 10%는 116만원 벌었다」, 『매일경제』, 2020. 01.27.)

과 품위 있는 삶을 지켜내는 것 역시 ‘소프트파워 인문학’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불리 일으키는 반향을 함께 목도했거니와,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비판적 표현만으로도 국가이미지와 소프트파워는 크게 높아질 수 있다.

6. ‘소프트파워 인문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하드파워’ 영역에 있어 아직은 강한 ‘파워’를 갖고 있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소프트파워 신장을 국가브랜드 제고의 중요한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차원 높은 소프트파워 구축에 인문학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이러한 측면의 연구와 관련해 필자는 ‘소프트파워 인문학’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소프트파워 인문학’은 한국의 인문자원을 ‘소프트파워’ 시선으로 재조명하고, 분과 학문의 경계와 활동 분야 그리고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협업적 연구를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소프트파워 자원으로 전화시키는 실천적 인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인문학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의 소프트파워 제고와 국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소재의 발굴과 가공에 관심을 집중하고, 지역과 문화권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들을 세심히 분석함으로써 대상마다에게 적합한 내용과 형식까지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소프트파워 인문학은 학술 연구를 심화하는 과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이념을 모색하고, 인문적 가치가 반영된 제도의 수립과 시행까지를 연구 범주 속에 포괄함으로써 학술의 공공성도 제고할 것이다. 한국사회에 먼저 인문가치를 확산하고 그것을 실현하며, 그것이 국제사회로 발신되면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도 공헌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프트파워 개념이 제시된 지 30년이 지났고, 한국은 소프트파워 제고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여건에 처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프트파워 관련 인문학 연구는 여전히 개척되어야 할 분야의 단계에 처해 있다. ‘소프트파워’를 키워드로 설정해 KCI⁴⁴⁾에 탑재된 연구성과를 검색한 결과(2013~2018년 기준), ‘소프트파워’ 관련 연구논문은 총 248편으로 집계되었고, 그 중 인문학 분야에서 산출된 논문은 58편으로서 23.4%의 비율을 차지했는데, 인문학 분야에서의 소프트파워 관련 연구는 ‘중국·한류·문화산업’ 등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2013~2018년 사이에 개최된 소프트파워 관련 학술대회는 5건 뿐이었으며, 인문학 분야에서 개최한 학술대회는 2건에 그쳤다. 한국의 인문적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크게 진작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프트파워 관련 학술회의 개최 현황

	학술대회명	개최기관명	개최기간	연구분야
1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소프트파워 워크숍	민족문화연구원	2016.04.13.	인문학
2	소프트파워와 대북한 관여정책	아세아문제연구소	2013.05.06.	사회과학
3	중국 지식의 해외 네트워크 : 디아스포라와 소프트파워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14.12.19.	중국 (인문사회)
4	국가브랜드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모색	언론정보연구원	2014.07.24.	사회과학
5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해외학자 초청간담회)	성균중국연구원	2013.09.23.	기타사회과학

‘소프트파워’ 개념의 제출은, 미국이 자국의 목적을 관철하는 수단으로서 군사적·경제적 압박과 같은 하드파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도리어 패권의 위기를 맞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9·11 테러’라는 대형 사건이 발

44)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

생하고, 국제화·정보화 환경의 조성과 빠른 발달로 인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나이가 주장한 바의 소프트파워 구성 요소 중 ‘대외정책’은 국가 차원의 외교 행위를 지칭하는데, 나라마다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정부 차원의 활동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NGO 등의 비정부기구나 여타의 민간기구들도 소프트파워 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국 소프트파워 형성과 발신의 핵심 주체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인문적 소프트파워 자원을 풍부하게 구비한 한국으로서는 공공외교에 있어서도 인문적 소프트파워의 창출과 활용에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인문적 소프트파워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해 인문학적 가치가 반영된 국가운영전략과 제도가 수립되고 시행되며, 나아가 산업 발전까지를 도모할 수 있으려면 학계, 정부, 국회, 문화계, 기업 간 소통과 협력 체계 수립을 선도하고 효율 증대를 도모하는 플랫폼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소프트파워 인문학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학계에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프트파워가 국가 발전과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전략 수립에 직접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새뮤얼 헌팅턴·로렌스 헤리슨 공편, 이종민 옮김, 『문화가 중요하다』, 서울, 김영사, 2001.
- 조지프 S 나이 지음, 홍수원 옮김, 『소프트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2004.
- 김상배 엮음,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서울, 한울, 2009.
- 김새미, 「외교대상(target)과 실행체계를 중심으로 본 문화외교의 쟁점과 추이 - 영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제9권 1집(통권 제 16호), 2018.
-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지음, 송경진 옮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 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 서이중, 「미래 전장환경에서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역할 및 기능」, 『한국 사회과학』 통권 제29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 위행복, 「4차산업혁명 시대 人文學의 展望 - ‘材’와 ‘不材’의 사이」, 『한중언어 문화연구』 제47집, 한중언어문화연구회, 2018.
- _____, 「중국의 문화산업정책 분석」, 『한중언어문화연구』 제51집, 한중언어 문화연구회, 2019.
- 황낙건, 최형배, 김영택, 「K-POP과 K-POP 스타가 국가이미지와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제6권 제4호, 2012.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주요내용」, 2019.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일본의 콘텐츠 산업 강화 전략』, 2013.
- 현대경제연구원, 「방탄소년단(BTS)의 경제적 효과」, 2018.

Abstract

Suggestions for Promoting Research on Humanistic Soft Power

Wee, Hangbok · Park, Jongbo

'Soft Power' is a contrasting concept with 'Hard Power' which refers to physical power such as military and economic power. This was presented by Joseph S. Nye, who described it as "the power to get what you want by attracting peoples' mind rather than coercion or reward." As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he US began to falter after 1980s, Nye disputed the decline of the US by claiming that it has strong Soft Power.

Nye proposed the concept of "Soft Power" as a means to maintain the supremacy of the US in post-Cold War era. 'Soft Power' uses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that can be universally sympathized without using oppression or appeasement. And in terms of seeking voluntary consent, cooperation and support through the path of 'inspiration', the concept contains many elements to improve human society. Due to highly developed globalization and hyper-connectedness of communications and media, various information can be exchanged almost unlimitedly at low cost and high speed. Countries with weak Hard Power is now able to raise their national image and power through the expansion of Soft Power. Enhancing "Soft Power" is becoming the focus of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and Korea is no exception.

Soft power is a holistic concept composed of various elements. The Korean Wave, which focuses on popular culture such as K-drama, K-film, and K-pop,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Soft

Power. However, popular cultural products are less relevant to the nation's awareness, and it is a difficult way for a serious understanding of the humanistic values of Korean society. Also, there is a risk that a scandal or excessive commerciality of individual pop stars could cause a negative effect on the national image. Therefore, Korea's cultural products, which are draw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Humanistic Soft Power' resources of the Korean society must be distributed and spread together, in order to promote a long-term and stable Soft Power and raise the overall level and vitality of the 'Korean Wave'.

In order to achieve a long-term and reach higher level of national image improvement, Korea needs to develop "Soft Power Humanities" by utilizing the humanistic resources of Korean as a source of Soft Power. In author's opinion, 'Soft Power Humanities' is a practical humanistic study that re-examines Korean humanistic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 of 'Soft Power', and conducts collaborative research that transcends the boundaries and activity fields of academic disciplines, as well as the boundaries of regions and countries. As a wide range of region and diverse culture are set as targets of Soft Power, the cultural dis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nd the preferred contents and formats are also included in the interests of research.

Soft Power Humanities not only could be a process of deepening academic research, but also pursues ideas to solve problems faced by Korea and the world. The publicity of scholarship will also be enhanced b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ystem that reflects humanistic values in the research. If we spread and practice humanistic values in Korean society in advance, and deliver i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 on, it will not only enhance the national brand but also improve human life.

If the Humanistic research in Korea discuss the concept of 'Soft Power Humanities' and promote related academic fields, it will not only encourage the expansion of the reflective study, but also be able to better respond to the social expectations. Based on the idea that further interest and research in this field need to be promoted for strengthening Korea's Humanistic Soft Power, I suggest rudimentary opinions to academia.

Key words : humanistic resources of Korea, soft power humanities, hyper-connected era,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try brand

투 고 일 : 2020. 1. 10. / 심 사 일 : 2020. 1. 15.~ 2020. 2. 15. / 게재확정일 : 2020. 2. 20.

